

7/28/19

설교 제목: 재물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포기한 부자 청년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마가 복음 10 장 17-31 절

- (막 10:17)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 (막 10:1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 (막 10:19) 네가 계명을 아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 (막 10:20)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 (막 10:21)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 (막 10:22)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 (막 10:23) ○예수께서 둘러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 (막 10:24)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애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 (막 10:25)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절관주** 마 19:24
- (막 10:26)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 (막 10:27)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 (막 10:28)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 (막 10:29)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막 10:30)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 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절관주** 대하 25:9, 시 19:11
(막 10:31)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모든 인간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일차적인 육신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둘째 사망인 이차적인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일차적인 육신의 죽음을 거친 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다같이 부활합니다.

그리고는 심판의 왕으로 오신 흰 옷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백보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유향 불못 곧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이 둘째 사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본문은 재물 때문에 영생을 포기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당신이 고난의 길을 가실 것이리는 것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쑥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맥의 흐름이 끊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생똥맞게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가셔야 할 고난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영광의 길만을
생각하고 추구했기에 그들의 관심은 은통 세상에서 누가 크냐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찾아 온 부자 청년을 통해 제자들에게 또 다시 당신이 고난의 길을 가야하는
이유를 알려 주고 더 나아가서 올바른 메시아관을 일깨워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당신이 고난 받으실 것을 두 번째 예고하신 후 길을 나서시는데 한 청년이 달려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영생에 대해 묻습니다.

(막 10:17)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마도 이 청년은 이 문제를 가지고 적지 않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 소문을 듣고 찾아 온 것입니다.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말씀하시기에 앞서 청년이 부른 당신의 호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십니다.

(막 10:1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으로 보아 이 청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보통 사람들 보다는 좀 더 존경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가리켜 선하다고 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악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청년의 말 속에서 이 청년이 인간의 선하고 악함을 세상적이고 도덕적인 잣대로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명확히 잡고 넘어가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서는 청년이 알고 싶어 하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막 10:19) 네가 계명을 아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 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것들은 다 십계명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계명을 다 지키면 영생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에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므로 살 수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레 18:5)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맞습니다.

계명을 다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계명을 온전히 다 지킬 수가 없다는데 있습니다.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인간은 죄인이기에 죽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을 수 밖에 없는 슬픈 운명을 안고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청년이 대답합니다.

(막 10:20)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청년은 율법을 다 지켜면서 살았다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만약 이 청년이 예수님께 대답한대로 모든 율법들을 완전히 지키며 살았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그렇게 계속 산다면 그 청년이 영생을 받는 것은 따논 당상입니다.

그것을 모를 리가 없는 이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속에는 웬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면서 살았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청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막 10:21)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서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키면서 살았다고 자신있게 대답한 청년에게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청년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막 10:22)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기서 ‘재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끄떼마(kth'ma)’, 토지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토지는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단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토지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것 이외에 토지를 소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토지는 매매를 할 수 없고 임대만 할 수 있습니다.
임대하다가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로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임대료도 희년이 몇년 남았나를 계산하여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청년이 토지를 많이 소유했다는 것은 율법을 범하였다는 증거입니다.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불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주라고 하시며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토지가 언제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주면 됩니다.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는 말씀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해석해 보면 불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으면
율법을 범한 고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없다는 말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안됩니다.
만약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죄인이므로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다 지켜 구원받을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힘 입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고난의 길을 가셔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은 제자로의 초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등 처음 네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 (막 1:16)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 (막 1:17)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 (막 1:18) 곧 그물을 버려 두고 따르니라
- (막 1:19)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깎는데
- (막 1:20)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 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리고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 (막 2:13)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 (막 2:14) 또 지나가시다가 알패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 아무나 다 제자로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참으로 큰 은혜이자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청년에게 먼저 그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어찌보면 예수님이 너무 심한 조건을 내거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 (막 8:34)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다른 모든 제자들도 모두 그들이 소유했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고심 끝에 결국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 (막 10:22)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청년은 영생과 재물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그에게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보다 눈에 보이는 재물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썩어 없어질 것을 놓지 못해서 영원한 하늘의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청년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막 10:23) 예수께서 둘러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막 10:24)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노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애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얼마나 어려운지

(막 10:25)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막 10:26)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막 10:27)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약에서는 재물이 곧 복이었습니니다.

그러던 것이 신약에 와서 복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서는 그동안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했던 재물이 오히려 구원을 받는데 방해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하여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면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반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세상 재물에 대한 욕망을 포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면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무지한 사람의 마음을 일깨워서 세상 재물이 헛되고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좋은 예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 그동안 그가 유익하게 여겼던 세상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늘의 상급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신이 났습니다.

자신들은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막 10:28)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막 10:29)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막 10:30)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 배나 받되 박해를 견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막 10:31)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께서서는 신이 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박해와 함께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는다고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현세에서 박해와 함께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는다’는 것은 신약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는 것’은 먼저 믿은 유대인 신자들 중에 이방인 신자보다 나중 될 자가 많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힘 입지 않고는 천하에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 아무리 잘나고 바르고 똑똑해도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험난한 십자가 고난의 길을 홀로 외롭게 묵묵히 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선택받아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부자 청년과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여 영생을 얻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택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결국은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을 모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